

경제

이코노 & 비즈 피플

중기청 차장 취임 임충식 전 광주·전남중기청장

“호남 중소기업 애정 갖고 돕겠다”

천일엽 명품화·광주전남청 '1등 지방청' 보람

광주일보 시상 '중기인상' 기업인들엔 자긍심



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상을 받은 기업인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았다"며 "이들이 이 상을 영예로 생각하고 기업 성장의 주춧돌로 삼는다"고 말했다.

임 차장은 또 '문화 경영'을 강조한다. 21세기에는 문화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사회라며 기업도 문화마인드를 가져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발레 마니아로 학창시절부터 국내외 유명 정통 클래식 공연을 즐겨 관람해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9일 자신의 취임식을 '중소기업과 문화예술' 특강으로 대신할 예정이다.

임 차장은 영광 출신으로 광주교과와 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APEC 중소기업분야 코디네이터,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을 역임했으며 지방중소기업청장 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년3개월 간의 광주생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던 광주·전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돌렸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임충식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이 8일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승진해 광주를 떠났다. 임 차장은 9일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임 신임 차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며 “그림자보다 빛에 포인트를 맞춰 긍정적으로 사 고하라”고 말했다.

임 차장은 “광주·전남 지역경제도 마찬가지로”라며 “열악한 인프라 탓에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21세기 친환경·녹색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장은 실제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 특화사업으로 '전남 천일엽의 세계 명품화'를 추진했다. 임 차장은 “전남은 전국 천일엽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업체 수도 전국의 91%에 달하는 천일엽 주산지”라며 “세계에서도 전남 천일엽의 품질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가공·마케팅 등의 과학적 데이터가 없어 그 가치가 저평가돼 kg당 1500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방법을 위생적으로 개선하고 가공을 고급화하면 kg당 40만원의 값을 받을 수 있다”며 “부가가치가 270배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일엽 명품화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 차장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광주전남청을

'1등 지방청'으로 우뚝 세웠다.

지난해 전국 11개 지방청 평가에서 민원인 만족도 1위, 업무 능력 1위, 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무의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임 차장은 이같은 성과에 대해 “직원들의 일심단결의 결과”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차장은 광주일보와 공동으로 시상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경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실적 '쑥쑥'

트랙터 대여·무인헬기 방제 등 농지면적 227% 증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에 따르면 농기계를 대여해 농작업을 해주는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지난해 전남 논 면적의 10%를 넘는 2만1000ha의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도의 6418ha보다 227.2% 증가한 것이다. 무인헬기 방제도 6000ha에

달했다.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농기계를 구입해 책임운영자에게 임대해 줘 각종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책임운영자는 소비자 가격의 70~80% 가격에 농기계를 5~8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임대 농기계는 트랙터·승용이앙기·콤바인·로타베이터·플라우·로더 등이다. 대형 농작업은 밭갈이와 땅 고르기, 모 심기, 수확 등이며, 지역

농협에 따라 비료주기, 볏짚 묶기, 무인헬기 방제 등도 해준다.

지난 2008년부터 농기계은행 사업을 펴온 농협 전남본부는 이 사업을 위해 그동안 533억원의 중고 농기계를 118억원의 새 농기계를 사들였다.

양회권 농기계부품센터 소장은 “최근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영농 참여 등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해 농기계은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평가에서 고흥 팔영농협과 함평 손불농협이 농림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농작업 대행 우수 농협으로 고흥 팔영농협과 함평 나비팔농협이 선정됐으며, 전남본부는 지역본부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대형 조선소 회복 기미

현대삼호중 10척·대한조선소 2척 수주

국내 대형 조선업계의 선박수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남 도내 대형 조선소들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형 조선소들은 여전히 수주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낮아진 선가(船價)도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아 이들 업체의 수주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전남도와 지역조선업계에 따르면 도내 중·대형 조선소 4곳 중 올해 들어 수주물량을 확보한 업체는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소 등 2

곳 뿐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8천8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10척을 수주했으며 한동안 매각협상이 진행되면서 수주에 나서지 않았던 대한조선도 올해 들어 18만톤급 벌크선 2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조선소의 수주잔량도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110척, 대한조선은 11척이 남아 있어 내년까지는 수주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대형조선소들의 수주가 회복되면

서 영암 대불산단에 입주해 있는 선박박복 제조업체까지 덩달아 활기를 띠면서 관련 업체들은 인력충원과 원자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중형 조선소들인 세광·신안중공업 등은 올해 들어 아직 수주실적이 없는 상황이며 수주잔량도 거의 바닥나 있다.

현재 세광조선의 경우 탱커 등 다목적화물선 수주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신안중공업도 네덜란드의 특수화물운반선 수주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막판 가격협상을 벌이고 있어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으나 낮아진 선가로 인해 이들 조선소가 쉽게 수주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취희재본부=이성진기자 sslee@

국세청 고의체납 강력대응 '체납정리 전담반' 운영

국세청이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 전담반'을 신설 운영한다. 국세청은 8일 최근 “고의 체납 세금 규모가 커지고 신종 재산은닉 탈세수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자가 증가해 '체납정리 특별 전담반'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 1개를 신설하고 각 지방국세청 정세과 산하에 총16개팀 174명으로 편성·운영된다.

이들은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인 고의체납자를 일선세무서로부터 인계 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서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코스피지수	▲ 1,996.32 (+16.05)
코스닥지수	▲ 524.99 (+6.22)
금리 (국고채 3년)	▼ 3.89% (-0.03)
원·달러 환율	▼ 1,118.00원 (-1.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광주·전남 가계대출 크게 늘어

지난해 24조원...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차지

지난해 광주·전남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으며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은 주택담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8일 발표)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 지역의 가계대출 동향 및 특성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광주·전남의 가계대출 잔액은 24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조4000억원(10.9%)이 증가했다.

2008년 말 1조7000억원 증가에서 2009년 말 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증가폭이 2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2조2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0.1%를 차지했으며 주택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6월 43.2%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말에 50%를 넘었다.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2008년 이후 매월 전년 동월대비 30~4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2008년 이후 감소하다 최근 증가세로 전환돼 11조1000억원으로 2008년 말 수준을 회복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2009년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0년 말 현재 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가계대출은 광주 13조1000억원으로 53.5%, 전남이 11조3000억원으로 46.5%를 차지했다.

또 광주·전남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2009년 3월 4.0%를 기록한 이후 2010년 12월 11.1%까지 꾸준히 상승했지만, 기업대출의 증가율은 계속 하락해 2010년 4월 이후에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말 27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중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대출 증가액은 1조7651억원으로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증가액(2조4289억원)의 72.7%를 차지해 2008년(67.0%)보다 기여율이 상승했다.

이밖에 광주·전남 지역 가계의 이자지급액이 개인 총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수도권(6.3%) 및 대전·충남(4.9%)보다는 낮으나 다른 지역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가벼운 신발 '플랫슈즈'

8일 광주신세계 패션스트리트 매장에서 관계자가 심플한 디자인의 플랫 슈즈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지역 중소기업, 채산성 유지하려면

“원자재값 급등, 납품단가 20% 올려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체들은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납품단가를 현재보다 19.8% 인상해야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10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의 납품단가 반영정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원자재가격은 평균 17.9% 상승했고, 이로 인한 제조원가는 평균 15.4% 상승했다.

하지만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한 납품가격 반영은 평균 5.2%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중소기업체들은 채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납품가격이 19.8% 인상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64.7%를 차지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88.9%)을 꼽았고, 다음으로 매출감소(47.5%), 원자재 수급 곤란(32.3%) 등의 순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자체 골목상권 보호 '말로만 하나'

SSM 규제 관련 조례 제정 31%에 그쳐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인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와 유류법과 상생법 등 SSM규제법안을 처리했지만 지자체가 관련 조례안 제정에 능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8일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제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SSM규제관련 조례안 제정을 완료한 지자체는 전체 225곳 중 31%인 70곳에 그쳤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는 광주 남구와 순천, 나주, 구례,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등 14곳이다. 특히 전남은 22개 기초단체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SSM규제관련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능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라며 “해당 지자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www.kjhr.com

국제보청기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항균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케모르케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